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2
JAN + FEB
2022 vol.16



특집 그리스도인과 선거

사람 사이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청년 시론 그리스도인 청년의 흔한 일상 : 교회 내에서의 정치 이야기

문화로 세상 보기 선거는 '전쟁', 공명정대한 '전투'여야!

ISSN 2671-8731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2

시선

‘살롬’을 위한 투표 | 신국원

02

특집

그리스도인과 선거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란 무엇인가? | 권연경

04

선거와 성경적 실천의 기본원리 | 백종국

06

선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기준 | 권오병

08

정치적 견해와 형제자매 사랑 | 송인규

10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성도의 자세 | 송태근

12

그리스도인, 선거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인성

14

정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눈 | 이병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한 표를 | 김반석

18

사람 사이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20

섬김의 자리에서

죄송함과 투정 사이에서 | 박진규

24



2022. 1+2월호 | 제16호(통권 231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시민(市民) 정명현	26
그리스도인 청년의 흔한 일상 :	
교회 내에서의 정치 이야기 최성환	28
청년, 일터 이야기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삶의 평안함 김광태	30
현실 직장, 그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조혜상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선거는 '전쟁', 공명정대한 '전투'여야!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위태로운 시대와 마주한 예술가 서성록	36
책을 보다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 이상민	38
현대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류현모	40
지금 왜 신사참배를 다시 이야기하는가? 석종준	42
교회, 예수 이야기에 충실한 종말론적 혁명 공동체 윤현준	44

교회 路

성복중앙교회 세계관 학교 소개 김문진	46
소감문: 가장 정확한 응답의 자리 김유리	47

온전한 지성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	48
-----------------------	----

소식

독자 한마디	49
사무국 소식	50
관련기관 소식	51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살림’을 위한 투표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선거가 리더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선 행정관을 추첨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비로 뽑혔다. 초대교회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맛디아를 그렇게 뽑았다. 미국에선 재판의 배심원을 추첨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가 일반화되었다. 선거가 비교적 결점이 적은 ‘지도자 선출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까지 많은 희생을 치렀다. 독재가 종식된 후 계속된 노력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후보에 대한 검증 장치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민의가 만족스럽게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고 박탈감에 시달린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늘 낙선한다고 느끼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과반의 지지를 못 얻은 당선자가 사회를 통합하기는 근본적으로 난망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당선자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 후유증은 ‘코로나 19’ 보다 훨씬 더 끈질길 것 같다.

선거제도의 한계도 있다. 여전히 흑색선전, 여론조작 같은 정치공작이 난무한다. 정책 대신 혈연과 지연, 학연에 호소하는 파벌주의가 판을 친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도 다반사이다. 선거를 이념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일은 고질적 문제가 되었다. 우리 정치 는 지난 이십여 년간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 전면전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근래에는 일부 종교인들까지 나서 거들다 보니 종교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관측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국내외 정세가 위태롭다. 반면에 후보들 면면이 금번처럼 우려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정책 대결 대신 누가 더 무능하고 흠이 많은지를 드러내기 위한 경연이 펼쳐지는 듯하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지지자들 때문에 도덕성이나 능력이 의심되는 이들이 감히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욱 기도와 지혜로 임해야 한다. 무관심이나 회의적인 냉소주의는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악이다. 아무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도 유권

자가 무책임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정치가 실망스럽고 혼란할수록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사실 피할 수가 없다. 정치가 삶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영향력은 너무도 크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 없이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기회이다. 세속적 민주주의에서 완전히 결여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 후보에게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 심사숙고해 하나님의 주권이 선거를 통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펴 차선의 후보라도 찾아서 투표해야 한다. 최악의 선택은 기권이다.

성경은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비를 뽑든, 선거를 하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원하신다(렘9:24).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인애가 더해져 모두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shalom’을 실현할 정치를 원하신다.

여러 교회가 대선을 위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시된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감사하다.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려 하지도 않고 편파적이지도 않으며, 공공의 선한 가치를 품어 일반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비전을 제시하고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이끌 지도

자를 세우소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남북한 관계를 비롯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는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아 이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참된 화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 나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가져올 사람, 특히 약하고 힘없는 편에 서서 일해줄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야 한다. 이념이나 신앙도 따지고 인품도 살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평화 실현에 기여할 인물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거 구호만큼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도 없다. 그 옛날에는 “배고파 못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치자”가 압도적이었다. 그 후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가 대세였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가 뒤를 이었다. 지금은 배고픔이 아니라 배 아픈 것이 문제요, 불평등 때문에 평안이 없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구호도 달라져야 한다. “배고픈 이에겐 빵을 주시고 배부른 자는 공의에 굶주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젠 이런 기도가 구호를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를 기준으로 ‘shalom’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란 무엇인가?

권연경 (숭실대 기독교학과 신약학 교수)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다. 마치 일 세대 미국 이민자와 같다. 그의 일상엔 미국 시민이다. 낼 세금 착실하게 내고, 챙길 것도 열심히 챙겨 먹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는 미국이 아니라 늘 태평양 건너 한국이다. 어디에 있든 내가 읽는 신문도 주로 한국어 판이다. 어눌한 영어 덕에 ‘미국’ 주류 사회와는 늘 적당한 거리가 유지된다. 평소엔 무난하지만, 때로 두 나라의 이익이 어긋난다. 그럴 때면 교차로에서 멈칫멈칫 선택을 고민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 두루뭉술 스케치로는 제격이다. 그런데 막상 별 도움이 안 된다. 고민은 대부분 내 이중적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이 정체성이 서로 싸우는 ‘현장’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이 원론을 파고들어야 얻을 게 없다. 우선은 ‘이 세상’과 다른 내 소속을 알아야 한다. 나의 초월적, 복음적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내가 발을 디딘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눈여겨 살핀다. 물론 서로 별개의 몸짓이 아니다. 내 마음을 둔 세계와 내가 발이 선 세계가 맞물리는 춤사위다. 이 복잡한 얽힘 속에서 내 몸은 어디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까?

원론은 쉽다. 내가 속한 나라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 이 그림은 더 복잡하다. 두 세계의 얽힘을 말하지만, 실제 싸움터는 늘 이 세상이다. 나는 세상을 살고, 세상의 뉴스를 듣고 생각한다. 온갖 생각과 욕망이 복마전을 이룬다. 그 속에서 내 길을 찾는다. 독창적 구조를 창출하는 주관식 답변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대개 이 세상이 허용하는 제안 중 하나를 고른다. 상충하는 세상의 제안 중 ‘제일 나은 것’ 혹은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선거(選舉)는 세상이 그려내는 욕망의 미로 속에서 어렵사리 선택하며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 장면 중 하나다.

선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부품을 사서 마음껏 조립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립된 몇 가지 사양 중 하나를 고른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기 정책을 조립해 제시한다. 사안 하나하나를 건주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정책의 전체 패키지는 후보와 소속 정당의 색깔을 닮는다. 평소 행보를 보아 왔다면, 그 색에 대한 평가와 결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할 만큼 선택이 힘든 상황은 아니다. 복음의 정치적 요구는 비교적 선명하다. 약자를 배려하는 공평과 정의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 원리와 가까운지는 꽤 선명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삶처럼, 정치 역시 욕망의 복마전이다. 아무리 잘 골라도, 기성복이 아주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각 후보를 비교하며 장점, 단점의 무게를 건준다. 참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선거가 어렵다는 느낌은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원치 않는 것까지 '패키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든 크든 나쁜 정책을 수용하는 일은 늘 어렵고 불편하다. 그래서 선거는 불편하고, 이 불편은 우리의 생각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복음과 정치가 만나는 방정식은 늘 다양했다. 특정 답안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풀이 과정은 필요하다. 선택의 동기가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선택은 동시에 내 신앙적 결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족과 불만이 뒤섞인 선택이라면 더 그렇다. 우리는 선택지를 따진다. 개인의 자질도, 속한 정당의 색도 따진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따지는 내 사유의 선명성이다. 전제된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특정 정책과 후보에 대한 내 선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묻는다. 후보에 대한 몰음인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올바른 선택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혼탁한 소통 과정이다. 주요 언론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 온갖 미확인 정보가 사적 경로로 마구 유통된다. 타당한 정보와 엉터리 소문이 뒤엉킨다.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정보 검증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엔 정보에 대한 내 태도나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반성도 포함된다. 많은

소리가 뒤섞일수록, 내 욕망에 주파수를 맞추기 쉽기 때문이다. 정보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은 내 사유가 욕망에 휘둘릴수록 더 강해진다. 선거는 유통되는 정보를 검증하는 연습이자, 이를 대하는 내 태도를 반성하는 기회다.

신자들 사이의 사이비 신앙 논리도 골치다. 예전엔 후보 자질과 무관하게 “장로니까 뽑자”라고 했다. 요즘은 “좌파는 교회의 적”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신앙적 숙고를 방해하는 시도이자, 여호와와 궤를 내 욕망에 동원하는 신성모독이다. 물론 여기에 속을 만큼 멍청한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속고 싶을 때다. 실은 세속적 공약에 끌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분을 세운다. 욕망을 감추는 종교적 포장이다. 이번엔 많은 목사가 그리스도인 대신 무속 신봉자를 호위한다. 종교적 수사의 공허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진다. 신앙의 수사 아래 숨은 정치적 속내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동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이다.

우리 삶은 언제나 정치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어루만지며, 최선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선거는 이런 나를 점검하는 중간고사다. 평소 나의 정치를 돌아보는 반성, 그리고 더 나은 참여를 바라는 결단의 기회다. 우리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의 시간이자 보다 깊은 숙고와 성숙이 더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권연경

송실대 기독교학과 신약학 교수이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폴러신학교(M.Div.)와 예일대학교 신학부(S.T.M.)를 거쳐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로마서 산책>, <행위 없는 구원>,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이 있고, <일상, 부활을 살다>, <IVP 성경신학사전>, <예수의 정치학>, <기독교와 문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선거와 성경적 실천의 기본원리

백종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최근 한국 개신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손봉호 교수의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 따르면, 이 위기는 한국 개신교 주류의 근본주의적 이원론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본연의 자세보다 제도적 기독교의 편협한 집단 이익과 나름의 정체성 유지에 급급하다.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다룰 때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외면하지만, 사학법개정과 목회자 과세를 다룰 때는 사회법을 무시하는 정치적 동원을 감행한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협조요청을 종교탄압이라 규탄하고 있다. 기독교의 고상한 기준은 고사하고 일반 사회 상식에도 못 미치는 위선적 행태 때문에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근본주의적 개신교는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 개신교 주류의 근본주의화에는 역사적 원인이 있다. 존 스타트(John Stott) 목사는 이를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서구 개신교계에서 발생한 '대반전'(The Great Reversal)으로 설명하고 있다. 급증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간성에 대한 환멸, 전천년설 세대주의 신학의 등장, 중산층 성도들의 보수적 동질화 추구로 인해 서구 특히 미국 개신교회에서 근본주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반전의 시기에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선교사

들이 세운 한국 개신교회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근본주의적 신앙은 식민지화, 남북분단,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의 고통스러운 역사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민중의 고통을 위로하는 일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고, 따라서 제3세계에서 드문 교회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 군사독재의 권위주의와 세속적 성공제일주의에 영합하면서 점차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수단이 목적에 우선하는 '매개의 변증법'¹⁾이 발생했다. 박성철 교수의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을 보면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현재 교회의 사유화, 담임목사 승배, 반대파 혐오, 교파 분열, 파시스트적 정치 동원이라는 일종의 종교 중독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중독은 사특한 이단 종파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단연코 기독교 복음과는 어울릴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와 '보다 온전한 복음'으로의 새로운 반전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1966년의 '휘튼 선언'

1. '매개의 변증법'은 필자의 독창적 주창 원리이다. 예를 들면 운동하려고 간사를 세우고 모금을 하는데, 나중에는 간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금을 하기 위해 운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문이 본질을 잡아먹고 마는 운동의 전도(顛倒) 현상을 경계하는 표현이다.

(The Wheaton Declaration)과 1974년의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통해 복음은 뿌리이며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모두 그 열매임이 선언되었다. 한국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보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각성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진보적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점차 보수적 근본주의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신앙의 뿌리와 열매가 분리될 수 없다는 온전한 복음으로의 각성은 기독교적 정치 참여의 기반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어떤 형태를 거치든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혹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을 의미한다. 간혹 일부 종교종교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택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서 벗어나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동질성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잘 분별하고 유권자를 속이려는 ‘연기’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공명선거가 진행되도록 감시감독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위한 지속적 정치학습이 커다란 과제이다. 가짜뉴스들을 제거하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상대적으로 더 합당하

나를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다행히도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전문가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추천 공약, 채점표, 유권자 회의 등이 온전한 복음을 향한 선택의 문턱을 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 체제를 선택하고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다. 칼뱅의 표현대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국민이 자기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거둬가실지도 모른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뱅주의 강연>(1898)에 인용한 칼뱅의 경고를 결론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출하여 이 (하나님의) 호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FAITH & LIFE



 글쓴이 백종국

국립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이다.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학부와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공의정치포럼 등 시민사회 운동에서 줄곧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멕시코 혁명사>, <민주시민의 교양>,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공저), <현대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공저),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공저) 등이 있다.

선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기준

권오병 (경희대 부총장 /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022년, 스무 번째 대통령을 세우는 대선이 해가 밝았다. 나라의 거버넌스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출을 위해 유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은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단, 대통령 선정 기준에 과연 성경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비중 있게 두는지는 의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지형이나 혈연, 지연, 경제적 이익 부합도 등에 따라 투표할지도 모른다.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13:1)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폐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이었던 자들마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셨다. 산헤립이 그렇게 명멸했으며, 아기 예수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애돔 사람 헤롯 대왕도 그의 사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애돔이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폼페이우스도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았으나 약 100년 후에 그와 관련된 환락의 도시 폼페이가 화산재에 뒤덮

인 채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며 응징당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속에 세상 주관자의 권세를 세우고 폐하심을 믿는 가운데, 세워진 권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특별히 더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이유이다.

의외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아마도 성경에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선거 이야기를 꺼내기가 주저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진보와 보수 또는 우익과 좌익의 정치적 지형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좌나 우에 속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 제안을 두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정치적 지형에 상관없이 지지하고, 땅에 속한 것이면 경계하고 책망하

고 거부해야 한다. 최현중(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불교인은 보수적이고, 천주교인은 진보적이며, 개신교인은 상대적으로 중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도와 하늘에 속함은 다른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후보자가 혹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어렵게 할 자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조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 생활하기 위함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유가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약 후보자가 각종 그럴듯한 논리로 교회의 평온함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가 항존직 직분자를 성경적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세우는 방식을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장로는 양심이 있고, 무흠하여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이끌며, 권면과 치리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도 그러한 도덕과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항존직 직분자들은 피택되면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으며 한 번 더 검증받게 된다. 이를 참고하여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추가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근대사에서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기도하고 이루어 했던 바를 잘 참고하여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일례로 1945년 12월 1일 상동교회 기독교교 교사 위주로 결성된 '기독신민회'는 교회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적 평등 국가 건설을 꾀했다. '기독신민회'는 성경적 사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고, 십자가의 건국 이념을 반영함을 목표로 했으며,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

통일을 추구했다. 허정윤 박사는 '기독신민회'의 기독교적 이상과 가치를 미래의 한반도에서 실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기독신민회'의 사상과 행보에 가장 유사한 대권 주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거판에서 흐르는 영적 기운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은 분열과 저주와 분노이다. 또한 선거 기간 세속주의, 진보주의, 이성 절대주의로 점철된 것이 목도되며, 이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에 맞서는 근대주의 세계관들이다. 우리는 오늘날 선대위의 선거 전술 전략, 여론조사의 형평성, 언론 기관의 생성물 등이 영(靈)의 생각 및 기독교 세계관과 거리가 멀지는 않은지 생각해볼아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세속적 세계관에 함몰된 사고나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선거 기간 전반에 성경적 원리와 성령의 생각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의 어둠, 어둠의 정치를 직면하고 있다. 어두울수록 참 빛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기도하고 선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권오병

경희대 부총장이자 경영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1996~2003), 미국 카네기멜론대 방문과학자(2002~2003), Asis Pacific Journal of Business Review 편집위원장, 차세대정보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SSK 4차산업혁명연구단장,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치적 견해와 형제자매 사랑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대표)

나는 정치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신문이나 뉴스도 거의 안 보고, 정당의 이름이나 관련 정치인의 소속 정당조차도 새까맣게 모르는 것이 나의 형편이다. 그런데 ‘정치적 견해’를 논하려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같지가 않다. 정치에 빠삭한 이들(또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바짝 열을 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들은 통상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정치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단지 정보만 많이 갖춘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신념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정치에 해박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럽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이런 정치 덕후들에 대해서 때로 안쓰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 왜인가?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상대방에게 은근히 강요하거나 고집스럽도록 설득 공세를 펼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다 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기까지 한다.

성경의 가르침

한때 요한은 열두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그로 하여금 그런 활동

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눅 9:49). 그러나 그리스도께 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눅 9:50)고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의 배타적 자세를 은연중에 나무라셨다. 어떤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본질적 사안**] 그가 제자들 그룹에 합류해 있느냐 아니냐[**부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패념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끼리 본질적 사안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아야 하지만 부차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렇 수도 있고 저렇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슷한 사고방식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도 기술되어 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을 먹는 일[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과 날을 지키는 일[안식일, 주일,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5-6)라고 말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롬 14:7) 주를 위하여 사는 것[**본질적 사안**]이 확실하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든지

날을 어떻게 지키든지 하는 것[부차적 사안]은 그리스도인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귀에 익숙한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본질에서는 일치(unity), 비본질에서는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charity)”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이다.

정치적 견해의 성격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고 변호하는 정치적 견해는 본질적 사안인가 비본질적 사안인가? 이것은 정치적 견해의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음의 진술을 보라.

(S₁)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S₂) 정치란 힘을 분배하는 기술이다.

(S₃) 정치가 어지러우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의 정치적 견해는 누구나 동의하는 본질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주장들은 어떤가?

(S₄)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적 존재이다.

(S₅) 북한은 악의 축이다.

(S₆) 새마을 운동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찬성부터 반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다투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이 주장들이 비본질적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우리는 (S₄)~(S₆) 같은 비본질적 사안에 목을 걸고 싸우고 흥분하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그것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처로 삼았다고 고백하는 이들 끼리 말이다!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받아 주는 사랑

분명코 우리의 태도와 행동거지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논리와 판단에 의해 나름대로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주장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그런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요 13:34-35)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참여한다면, “어떤 사람은 진보적/보수적 견해를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중도적 견해를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진보적/보수적 견해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중도적 견해를 고수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고수하느니라”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정치적 견해의 획일적 통일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형제자매 사랑이 아니겠는가? FAITH & LIFE



✍ 글쓴이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신학,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철학(Ph.D.)을 공부했다. 한국 IVF 총무를 역임했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은퇴 후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고립된 성>,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평신도 신학>, <성경의 적용>, <책의 미로 책의 지도>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성도의 자세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



성경은 우리에게 시시콜콜 모든 삶의 방법을 말하지 않지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길을 제시하곤 한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영적인 상태를 동원해서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뇌하게 한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겪으면서 어느 선거보다도 혼란스럽다. 좋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데 ‘노’(NO) 답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조적인 말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후보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인물들에 관한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분별력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뒤바뀐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번 선거를 대하여야 할까?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는 유명한 행동 심리학자이다. 인간에게는 내면 활동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인간은 물질적인 외적인 삶으로 활동하고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굳이 스키너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의 평소 축적된 내면의 활동과 지향점과 욕구가 이번 선

거를 통해서 표출될 것이다.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의 내면세계와 활동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원리라고까지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도식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성도는 선거가 인간의 손으로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믿어야 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결코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서는 권력은 없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박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사 19:3~4). 또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세워 쓰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사 45:1) 이는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는 우선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두려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둘째, 성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매일 기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인물 즉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신분 고하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누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며 분별해야 한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 못지않은 탁월한 통치자로 평가를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특별히 그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185,000의 대군을 대신 쳐서 물리치는 대승이었다. 또 히스기야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사 38:1)라는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조차 움직이는 주어진 특권이자 능력의 통로이다. 성도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별히 기도하되, 이 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 즉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기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행위

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권력이며 권위이다. 금권선거나 거짓 선동에 대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방색을 이용해 세몰이하는 행위는 국민 스스로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한 표의 권리 행사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민주 시민사회’라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이다. 민주 시민사회에서 선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 하나이다(마 22:39).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이렇듯이 성도는 이 세상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FAITH & LIFE**



 글쓴이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2012~현재)이다. 총신대 신학과 학부와 신학대학원, 미국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강남교회 담임목사(1994~2012)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전환의 신앙>,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예수님의 10가지 명령>, <그러므로 기도하라>, <쾌도난마 요한계시록>, <쾌도난마 사도행전>, <쾌도난마 다니엘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 <묵상 지침>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 선거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방인성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나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우리 현실의 정치, 사회, 경제가 성경의 원리에 맞는지를 평소에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나랏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첫째, 대선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법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하겠다.

선거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치(사회)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실천이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다스림(정치)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라고 창조 직후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 즉 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땅을 정복하라.”(탐욕을 제어하고 보호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생물들의 영역을 지키며 가꾸어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실 정치(사회)참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이 기준이 된다. 신앙의 핵심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인애와 공평과 정의이다.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렘9:24).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정치는 온전하게 드러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8) 이는 폭력적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둘째, 대통령 선거에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강단에서 불법 선거 발언을 하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선거철에 대형교회들이 야합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정 종교, 지연, 학연과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되면 국민,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공약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살펴봐야 한다. 선거 때에 공약 남발에 속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한 대립이다. 통합의 걸림돌이며 개혁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정책은 평화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후보자의 공약이다.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이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청년이 희망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심성인지 실현 가능한지를 보아야 하겠다. 대통령 후보자의 인격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정치는 힘없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현실참여에 대한 참회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는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일제강점기 때의 3.1운동과 신사참배 반대 운동,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통일 운동, 환경운동,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 운동 등은 소수이지만 한국교회의 자랑이다. 반면에 신사참배 가결, 군부독재 옹호, 전쟁도 불사하는 흡수통일 주장, 설교 강단에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목회자의 각종 부패, ‘코로나 19’ 방역을 무시한 집단감염의 진원지, मामले 굴복한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 등은 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많은 한국교회가 타락한 중세교회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된다. 정교분리를 외치며 성도들에게 세상에 등을 돌리게 하던 보수교회들이 광화문과 시청 광장으로 뛰쳐나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십자가를 앞세워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모습은 웃지 못할 풍경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흐르는 이원론 신앙을 매우 경계하였다. 이원론적 사고는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이다. 이원론의 무속은 세상을 속(俗)되다 하면서도 현실에서 이기적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길들여진 교인들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의와 부패에 저항하며 외치는 자들을 신앙과는 무관하거나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 신앙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मामले 사로잡혀 돈에 노예가 된 한국교회는 이원론의 무속신앙을 떨쳐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을 누려야 하겠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임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이자 통일부 산하 (사)하나누리 대표이다. 조부 방계성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렀고, 부친 방정원 목사에 이어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다. 런던 킹스칼리지(B.D)와 옥스퍼드 웨스트민스터칼리지 대학원(Th.M)에서 공부했다. 영국 국제장로교회(IP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옥스퍼드 한인 교회 담임목사, 귀국해서는 성터교회, 함께여는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 발족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개신교 개혁 활동을 펼쳐왔다.

정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눈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선악과의 눈’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보는 ‘눈’에는 ‘선악과의 눈’과 ‘제6계명의 눈’이 있다. 우선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정치는 공격적이다. 많은 경우,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선악 판단은 정반대로 갈라진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더하여 하나님이 한쪽만 지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치관은 더 험악해진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보주의자들의 박멸을 기도하고,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을 배척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 가지려 할 때, 하나님은 십중팔구 괴로우실 것이다.(왕상 3:25).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창 2:17)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심판할 능력이 없고, 사람이 세상을 심판하려 들면 세상과 사람이 모두 치명적 위협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스러워서, 자꾸만 먹고 싶어

한다.(창 3:6).

‘개인적 선악과’는 타인을 판단하는 개인적 교만의 죄를 낳고, ‘정치적 선악과’는 다른 집단을 심판하고 제거하려는 집단적 폭력성의 죄를 낳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경우,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심판하고 제거하려는 증오와 폭력성의 예언자적 열정에 휩싸인다. ‘선악과의 눈’은 정치적 이웃을 원수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반(反)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제6계명의 눈’과 정치적 민주주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과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재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인생과 세상에서 계속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불쌍

하고 힘겨운 '인간의 자기 사랑' 때문이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서로 부딪치면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인생의 불행들을 만들어낸다. '개인적 자기 사랑'의 충돌은 '개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해치고, '집단적 자기 사랑'의 충돌은 '집단적으로' 다른 집단의 생명과 인생을 공격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자기 사랑'은 직장과 가정의 이웃 간에 생활적인 다툼과 폭력을 만든다. '집단적 자기 사랑' 중 '국가적·민족적 자기 사랑'은 이웃하는 공동체 간에 격렬한 증오심과 전쟁의 비극을 만든다. 그리고 '계층적 자기 사랑'은 사회 내부의 집단적 이웃 간에, 보수와 진보와 인종과 계층 간에, 정치적인 대립과 지속적인 정치적 내전 상태를 만든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집단적/계층적 자기 사랑'의 충돌이 '총탄'(bullet)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적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투표용지'(ballot)로 상대방을 일정 기간만 제압하는 '평화적인 전쟁'에서 멈추게 하는 정치적 장치이다. 선거에 졌을 때는 분하지만, 몇 년 뒤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한다. "전쟁은 전쟁이되 욕만 죽어라 하고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는 평화적인 전쟁"을 발명한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의 역사적 실현이며,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정치적)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적) 원수를 건디며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해주는 이중적 계명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마 5:9)로서, 기독교 신앙의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과 '보수'와 '진보' -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신앙적 의미

세상에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함께 산다. 하나님은 세상의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정 지향적인 보수주의에도 들어있고, 변화 지향적인 진보주의에도 들어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와 '양자간의 제대로 된 싸움'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이익과 관점에 따라서 보수주의를 지지하거나 진보주의를 지지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선악과 계명은 사람이 "극우의 자리에 앉아서 진보와 좌파 모두를 악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 것"과 "극좌의 자리에 서서 보수와 우파 전부를 악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나'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만큼,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이웃사랑'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듯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황금률'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없으면 세상은 더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정치적 원수를 건디고 정치적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정치적 이웃사랑의 발명품이자, 사람을 죽이고 해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커다란 신앙적 전진이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6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유쿠스: 육해야 하는 인간>, <육하는 기독교, 육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등이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한 표를

김반석 (도쿄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운 요즘이다. 후보들의 사생활을 캐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특정 집단의 요구에 영합하는 선심성 공약이나, 혐오의 언사들이 선거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어젠다와 비전보다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형편이다.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지도력보다는, 가족과 측근의 비리가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많은 이들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마음이 더 앞서는 선거가 되어 가는 것 같다.

부끄럽지만 필자 역시도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매일 쏟아지는 선거 뉴스를 보면서,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검증하기보다는, “저 후보는 저래서 안 돼”라는 생각이 늘 앞섰으니 말이다. 극한으로 치닫는 대선후보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스스로 피로감을

을 느끼고, “될 대로 되어라”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고민을 안고 글을 준비하던 중, 5년 전 19대 대선 당시에 필자가 개인 SNS에 게재했던 <그리스도인과 시민의 책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직후, 정치적 효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당시에 썼던 글에는, 민주국가의 국민주권 원리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이자 책무이며,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거대양당제의 기성 정치가 짜놓은 갈등 구도에 익숙해진 나머지, 주권자로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스스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었던지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대선판이 ‘비호감 대결’이 된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거대양당제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에서 각 정당은 상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왔으니 말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투쟁에 익숙해진 나머지, 유권자가 스스로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정권 재창출 아니면 정권교체라는 이항 대립의 구도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양심과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후보들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만들어내는 갈등 구도에 휘둘리면서 선거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성 정치권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갈등의 선들을 이용하고, 상대 진영을 매도하면서 정권을 잡는 데만 골몰하게 된다. 그러한 악순환의 결과가 지금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인 우리는 각자의 양심과 신앙에 비추어 각자의 기준을 세우고, 주체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친일 공세나 색깔론, 젠더 갈등과 같은 기존의 갈등 선을 증폭시켜 자신들의 표를 확보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저열한 정치공학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대선판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표를 최선을 다해 행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년으로서 이번 대선에 바라는 점을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동안 청년세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이어 오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은, 기성 정치권이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 청년들을 그저 동원의 대상으로서, 혹은 지원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어 왔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혹은 각 정당의 소위 '청년 정책'을 보면,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단발성의 지원 정책이나 사업만 남발해 왔을 뿐,

청년들이 미래의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청년 정책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청년기는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사회에의 진입을 준비하는 이행기로서,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라건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을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지러운 대선판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역사에 보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자.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현재 도쿄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와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일본 문부성 장학금 시험을 통과하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 유학 중이며, 최근 사회학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학부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 SFC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 중앙위원단으로 활동했다.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선거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 박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고신대 석좌교수로서 대학에서 오랫동안 사회철학과 사회윤리학을 가르친 원로 교육자다. 또 1980년대 중반 ‘공명선거기독교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족에 참여해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민사회의 원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호 ‘사람 사이’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거 참여에서의 성경적 실천원리가 무엇인지, 또 특정 이데올로기와 정파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낼 방안은 무엇인지를 원로의 통찰과 해안으로 함께 모색해 본다.



일시 & 장소 2022년 1월 12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 전시실

인터뷰어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

정리 & 사진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김지원 교수님은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거의 평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윤리적이고, 더 정직하며, 더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에 일관된 관심을 집중해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처음으로 언제 있으셨는지요?

손봉호 대학 시절 성경을 읽는데요, 이상하게 제 눈에는 성경이 정직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4.19 무렵인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평소 암전한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데모에 참여한 몇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학과 친구들이 아주 놀랐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중심된 ‘새 생활 운동’이라는 것에도 참가했어요. 뭐냐 하면, 당시 양담배, 커피가 모두 밀수품인데, 그것을 피우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다방에 돌아다니면서 커피 못 마시게 하고, 양담배 빼앗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또 4.19

직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지프차를 빼내서 가짜 번호를 달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차를 200대나 붙잡았습시다. 지프차가 오면은 못 가게 길바닥에 드러누웠어요. 그 차들을 서울시청 뒷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우자 하는 소리도 하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처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김지원 교수님께서서는 1980년대 초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만드셨고, ‘공선연’(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을 출범시켜 군 부재자투표를 영외에서 하도록 하였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 유세 대신 TV토론을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손봉호 국민이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나

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 이만열 교수, CCC 단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공명선거기독교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지요. 그다음에는 1987년에 ‘기운실’을 시작했고, 1989년에는 제가 ‘경실련’ 공동 대표였는데요. 선거 때에 기운실, 경실련, YMCA, YWCA, 홍사단 등이 모두 함께, ‘공선연’이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당시 큰 사건 중 하나는 고려대 학군단 출신 중위가 ‘공선연’ 사무실에 와서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겨레신문사에서 하려 했는데, 신문사가 ‘공선연’에 보냈습니다. 양심선언 내용은 당시 군대의 부제자투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고, 헌병대가 붙잡으러 왔는데 우리는 계단에서 막았어요. 군은 우리를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하루는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와 저를 명동의 비싼 중국 식당에 초청했어요. 가니까 그리스도인 군장군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유하며 “군 부제자투표에서 부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좀 솔직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 부제자투표를 영외에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라고 했지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군 부제자투표가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에 대중 유세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수백 대 버스에 사람들을 싣고 왔는데, 문제는 다 일당 받고 오거든요. 서로 세 과시한다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싶어서, TV토론으로 바꾸는 운동을 했습니다. 서로 분담해서 여러 당을 찾아가서 설득했고, 그렇게 TV토론으로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이 두 가지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선거

후에 정부에서 그 공로로 제게 훈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김지원 그러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주 시민사회의 선거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손봉호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민주주의하고 관계없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개혁가 칼뱅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어요. 왕권신수설이 지배할 때인데, 자신은 민주주의와 귀족주의를 선호한다고 했지요. 이유는 국가 권력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칼뱅의 인간에 대한 ‘전적 부패’ 사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권력의 분산으로 부패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다 거기에 핵심을 둡니다. 그 말이 뭔가 하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패가 생긴다. 부패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고 정의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이유를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 그걸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구약 성경에서는 무조건 돌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특별히 관심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이고, 그 핵심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결국 성경이 말한 정의가 이룩되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김지원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내에는 세상 변혁의 성경적 비전을 원리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정치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듯, 특정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적극적인 선거 활동과 참여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데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봉호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정치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건 정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겠는지도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과 압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참 중요하지만 절대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항상 결점이 있고 또 감정이나 열정이 들어가 있는 이론이에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정치 이념을 정당화하고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에, 저는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정치를 우상화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 그와 반대로,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는 이른바 ‘정교분리’ 원리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공명선거 운동 같은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직 복음 전파, 곧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하고, 어떠한 정치 참여 활동도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손봉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되는 걸 끝까지 반대하셨고 바울 사도도 어느 정도는 그런 태도였어요. 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져 버리고, 사회가 잘못되면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선거를 제대로 해야 사회 정의가 이룩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요. 만약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국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 갑니다. 결국, 나도 물론 손해를 보지만, 내 이웃이 특별히 약한 이웃이 고통을 당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망상도 경계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원 그렇다면 교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주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즉 현실도피나 세속화라는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성경적 실천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손봉호 일단 저는 강조합니다. 국가가 맡은 일이 뭐냐. 적어도 성경에 보면 나쁜 사람 벌주고 착한 사람 상주는 겁니다. 로마 13장이 딱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거든요. 이러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두 우리 힘으로 다할 수 있다 하는 착각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라는 말씀대

로 우리는 '무익한 중'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만 우리는 우리 임무를 다한다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지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 국면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파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명심해야 할까요?

손봉호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명령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의를 이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령 경제 부흥, 남북통일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이 최고 우선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부패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골고루 잘 산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약한 사람이 너무 서럽지 않게 만드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와 투표에도 관여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 시민사회와 기독교계의 원로로서 대선 정국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변혁기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손봉호 현재는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20~30대는 이념에 관심이 없으니까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20~30대가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아칩니다.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그것으로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도 많이 나고요. 더 놀라운 건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된 영국과 미국이 포퓰리즘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나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놓았거든요. 그런데 합법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또 최근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합법적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우리 기독교가 포퓰리즘에 속지 말고 이념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정신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좀 교인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지원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운동이나 선거 등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진 우리 시대 2030 세대,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봉호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뼈에 사무치는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해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당장 무슨 집값 낮추겠다, 집 많이 만들어주겠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게 현실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표 받기 위해서 전혀 근거 없이 책임지지 못할 소리를 막 해대는데, 이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잃지 말라는 것. 환경 문제도 관심을 쓰고, 또 투표도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교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잡지에 올라온 댓글을 보고 아연실색(啞然失色) 했습니다. 형편없는 저질 댓글들이 기독교 잡지에 실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좀 기성세대와 다르게 자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입니다. FAITH & LIFE

죄송함과 투정 사이에서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글을 부탁받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의 첫 만남을 되짚어봤다.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게 새삼스럽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짧은 일본 생활을 거쳐 서울여대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송태현 교수님 초청으로 기독교학문연구소 소모임에서 발표를 했다. 뒤져보니 제목이 ‘텔레비전 속의 종교: 현상, 이해, 접근법’이었다. 학문하는 신앙인이기에, 더구나 ‘미디어와 종교’라는 생소한 분야를 전공하기에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신학을 배경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다. 이 분야는 미디어, 그리고 종교라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두 영역이 사실은 교차하는 지점이 아주 많으며, 그 교차점이 함의하는 바가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천착한 미디어학의 한 분야다. 물론, 미디어학의 문법과 언어로 연구한 바를 재해석하여 그 함의를 기독교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일 역시 내겐 중요하다.

그 인연으로 2009년부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 몇 차례 강의했고, 2012년에는 당시 월간이던 <월드뷰>에 ‘대중문화 속 가족 이야기’를 10회 연재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3년간,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실행위원, 또 <신앙과 삶>이 창간된 2019년 7월부터는 편집위원의 자리를 맡고 있다.

그전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자체에 관심을 두었던 건 아니다. 90학번으로 교회 대학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일부러 찾아서 공부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의 무게가 선배들한테만큼 무겁지 않다. 기독교 지성 사역의 방법론 중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다. 솔직한 고백이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80년대 초반부터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뤄놓으신 것에 뒤늦게 무임승차한 데서 오는 감정일 테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1세대와 2세대의 헌신과 열정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뒷세대의 한결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동시에 투정도 하고 싶다. 90년대 학번 이후 세대가 여전히 이곳을 내 집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를 혹시 나의 게으름이나 무지 밖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비겁한 마음에서다. 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언제부턴가 세대의 단절을 염려하게 됐을까? 왜

후속 세대의 마음을 사는 게 이리도 힘들까? 동역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지면임에 기대어 어쭙잡은 생각을 적어본다.

나는 그 답을 동역회와 관련한 논란의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 소위 '기세논쟁'과 2010년대 후반 <월드뷰> 분리가 그것이다. 서로 다른 원인과 맥락의 일들이지만, 모두 사회적 현실에 대한 동역회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현실에 접근하고 대응하는 동역회의 방식에 대한 바깥으로부터의 질책이 중심에 있었다. 한발 물러나 보면, 동역회는 한국 사회나 교인들이 현실에 관하여 제기하는 여러 질문에 답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준 경험이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요청된 몫이었다.

만약 그것이 동역회의 소임임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실과 끈질긴 씨름을 놓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그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되묻는 것이다. 설령 여러 현실적 한계로 각 쟁점에 대한 답을 순발력 있게 내놓지는 못한다 해도,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쟁점의 본질을 꿰뚫고 성찰케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 국면에서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회의가 두드러질 무렵 <신앙과 삶>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를 묻다'를 특집 주제로 다룬 건 무척 반가웠다. 하지만 더 많은 현안, 더 민감한 현안들이 남아 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건, 현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답변은 하나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유한한 인간이 이를 현실로 가져오는 순간 그 절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해석과 관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복음주의 정신과 전통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동역회의 역할

이 그 다양한 해석과 '관'을 끄집어내고, 이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고민에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신앙과 삶> 창간호에서 손봉호 명예 이사장님은 이렇게 정리하신 바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이다 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펼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세계관을 확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회피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망설임과 유예를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 학술대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현안에 대한 '기독교 입장'의 독점을 막아내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공정, 젠더, 이슬람, 통일 등 산적한 쟁점과 사회적 의제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동역회가 감당할 몫은 아닐까. 좌송함과 투쟁 사이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동역회를 소망하며 건네는 줄건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이다. 미국 Univ. of Colorado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미디어가 매개하는 다양한 종교(적) 현상을 연구한다. 한국언론학회 '종교와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신앙과 삶> 편집위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시민(市民)

정명현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 서기연 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목전에 다가왔다. 대선 기간이 되면 볼 수 있는 선거 차량 위에서의 흥겨운 유세, 대선 후보들의 열띤 TV 토론회 등이 사람들을 설레고 들뜨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번 선거를 소위 ‘비호감 대선’으로 부르는 여론이 생길 정도로 대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 때문에 <신앙과 삶>의 독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투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거는 단순한 도장 찍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지도자를 뽑는 방안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민주주의의 효시인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선거제의 형태는 근대에 들어와 탄생했다. 전근대 시대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영토가 확대된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소수의 대리인들에게 위임하여 표출하고자 했고,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중요해졌다. 이렇듯 선거는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대행

할 만한 대표자를 찾는 과정이다. 만약 당선된 대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전횡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의 삶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대표자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최악인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과 컄짚이를 구분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대표자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중하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편,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여쭙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꺼낸 데나리온 한 닢을 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명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세속의 권력자에도 존중을 표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근거로 모든 권세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제시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자의 권세를 겸손한 자세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굴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에 따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즉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이다. 세상 나라의 ‘시민’(citizen)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정의의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온건한 방법으로 그를 견제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선거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내지 능력은 무엇일까?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촉발된 문제들, 그중에서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을 구제할 정책을 구상해야 하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 빈곤층의 생계유지와 자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 공간의 확보는 궁극적으로 결혼 및 출산과도 직결되어 있다.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및 북한 문제를 유능하게 다룰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선언(예: 인권 탄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일

관된 대북 정책으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 나갈 막중한 임무를 다음 대통령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의 신분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신분이 주어져 있다. 바로 세상 나라의 시민(市民)이다. 대한민국이 복음적 가치 위에 바로 서 있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권이 당위가 아닌 축복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선거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후보가 다음 5년을 가장 명민하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명현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 재학 중이다.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서울대 CCC 순장이며, 매주 1회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부 멘토링 봉사를 나간다. 판교 예복교회 청년부 임원과 주일예배 방송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청년의 흔한 일상 : 교회 내에서의 정치 이야기

최성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2021년 12월 마지막 주, 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마침 같은 연구소에 다니는 동료 부부도 제주도에서 여행 중이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결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부부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에 대한 대화를 풍성히 가질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강대상에서 장로였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치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분의 정치적 잘못은 사랑으로 덮어주자고 강조하는 담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부모님의 신앙 아래에서 별수 없이 그 교회에 출석했지만, 독립 후에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적 방향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필자의 연구소 동료인 아내로 만나고 나서, “정치적인 견해가 없는 설교를 다섯 개만 뽑아주고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수긍할 수 있으면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선언을 했으며, 마침내 설교를 듣고 설득되어 비록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으나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22년 새해 첫날, 장인어른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장인어른은 요즘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참 좋다고 하시면서 교계에 이름 있는 몇몇

목회자들의 설교를 권하였다. 이에 아내도 최근 듣고 있는 설교가들을 이야기했는데, 장인어른은 이 중 한 분에 대해서 “그 목사는 좌파 목사야!”라고 비판하였다. 알고 보니 이름이 비슷했던 서로 다른 목회자로 인한 해프닝이었다. 장인어른이 ‘좌파’라고 언급한 목회자는 나도 알만한 교계 내에 이름 있는 분이었으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식사 후, 내가 ‘좌파목사 XXX’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자 놀랍게도 많은 글이 검색되었다. 시간을 들여 꽤 많은 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신학적 지식이 짧아서인지 기사를 읽는 독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이유를 납득하기란 어려웠다. 나는 이런 ‘강대상에서 목회자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이나 ‘믿는 사람이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치 영역 역시 창조세계의 하나로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두 일화를 겪으면서 나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을 느꼈다.

교회에선 가르침을 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구도가 너무나 쉽게 발생하고 이것을 깨뜨리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을 교조적으로 가르치게 되기 쉽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야기는 정치적 주장이 되어버리기 일쑤



다. 요즘은 직장에서조차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언정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하지만 교회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올 것만 같다”라며 도망가 버리는 청년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온라인에선 다들 ‘키보드 전사’(key-board warrior)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디서도 허심탄회하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조금만 정치적 견해를 밝혀도 좌파 혹은 우파로 낙인찍혀 극단주의자로 취급받곤 한다. 그렇기에 교회야말로 정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야겠지만, 교회 역시 ‘완장질’과 ‘프레이밍 씹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다른 곳에는 있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을 때가 많다. 이러한 대화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불성실한 혹은 성화(聖化)가 덜된 청년이라는 누명까지 써야 하는 곳이 교회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은 투표하지 않는 세대였지만, 이제는 기성세대만큼이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회만 오면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때 큰 인기몰이를 했던 책, <90년대 생이 온다>에서 저자 임홍택은 90

년대생은 일터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일터에서조차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조차 입 다물고 듣게만 만드는 엄청난 곳이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즐거울 순 없을까?

나의 짧은 경험과 학식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나 역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입 닫고 살기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다. 더욱이 기다리고 침묵하면서 버티다간 함께 이야기할 우리의 동료들이 결국 하나둘 곁을 떠나고 없어질지도 모른다. 기다림이 좋은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 용기 있게 교회 안에서 부딪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수 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 글을 부탁한 <신앙과 삶> 편집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을 내립시다”라는 거창한 구호가 가득한 글을 써주길 기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글의 독자 대부분이 기성세대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필자도 용기 내지 않는가? 다음은 당신 차례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성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임연구원이다. 카이스트에서 화학 전공으로 학부와 석박통합과정을 졸업했다. 카이스트 재학 시절 기독교세계관 동아리 RACS에서 활동하며 대표로도 섬겼다. 대전 새로남 교회 청년이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삶의 평안함

김광태 (민간경제연구소 인재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

부모님을 따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 습관이 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Quiet Time)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했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서 그날 묵상할 말씀이 적혀있는 큐티 교재를 꺼내 보았다.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군 시절에는 찬양인도자로 섬기던 부대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대학생 시절에는 기숙사 방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했다. 직장인이 된 지금은 주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하지 않은 날도 많았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청소년 큐티 캠프에 참가시키거나, 경건의 시간을 지킨 날짜 수에 천원을 곱해 한 달 용돈을 주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건의 시간을 지키게 하셨다.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셨던 어머니도 목회를 돕기 위해 퇴직하셨다. 두 분 모두 목회하기 전부터 평신도 사역자로 성경공부와 경건의 시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셨다. 성장하며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었는데, 대화는 항상 그날 경건의 시

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매번 그 주에 주어진 말씀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군대나 직장에서 벽에 부딪히거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 시기에 묵상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나아갔다. 아내에게 프리포즈 할 때나, 최근 직장을 옮길 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움직였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의 상황과 묵상한 내용을 교회 공동체와 나누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보에 힘입어 모든 상황에 더욱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말씀이 삶에 직접 적용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 나타날 때 얻는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사실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실패라고 할 만한 순간이 꽤 많았다.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고, 군중으로 섬기고자 지원한 육군에서는 전투경찰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대학 편입과 행정고시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을 선택했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고, 공대생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구매 담당자가 되고자 입



사했던 현대자동차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기업 교육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내가 소원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도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사회과학에서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resilience)으로 정의한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믿는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각 처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광태



현재 민간경제연구소 인재경영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예심교회의 안수집사로 청년부와 유아유치부를 섬기고 있으며, 성경적 세계관 중심의 목회를 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 사역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현실 직장, 그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조해상 (HEM Pharma IT 기획자)

나는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4학년 시절 26세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 당시는 학생일 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나 어느덧 30대가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 결혼을 결정했던 나와 아내보다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신 양가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깨달았다. 냉혹한 현실을 이미 겪으셨음에도 ‘무모한 결단’을 믿음 안에서 허락해주셨으니 말이다. 결혼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실존’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타트업, 나의 부르심?

학부생 때 접한 ‘BAM’(Business As Mission)이라는 단어가 나의 심장을 뛰게 했다.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선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공과 더불어 ‘기업가정신’을 배우며 창업의 꿈을 꾸었다. 마지막 학기 때 세운 사업계획서로 발표를 하러 다니며 사무공간과 사업 지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무실이 당시에 살던 지역과는 너무 멀었다. 기도하며 수소문 끝에 한 교회 반지하 공간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은 전혀 없었고, 아내가 모아뒀던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창업 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나는 비즈니스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모르면 비용이 든다. 알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구현하며 비즈니스에 대해 조금

씩 알게 되었지만 ‘아는 것’과 ‘탁월함’ 사이에는 엄청난 틈새(gap)가 있었다. 어설프게 가치를 비즈니스에 담으려 하니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지 못했다. 그 당시 하나님께 ‘탁월함’을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탁월함’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려 했던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 사업을 내려놓고 다음 발걸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현실 직장, 현실 믿음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같은 시기에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했을 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간절히 원했던 자녀가 생기니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직장은 가장 ‘스타트업 다워’ 보이는 교육 IT 회사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IT 기획자로 일했다. 첫 출근을 한 다음 날 팀장님과 함께 지방 회의에 다녀 온 후, 그 다음부터는 매주 혼자 지방 회의를 가야 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는 척을 해야 했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회사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치과대학 교육실 교수님들과 함께 치의학 교육에 특화된 실습 기반/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 ‘U-Folio’을 설계했다. 교수님들은 진료가 끝난 이후에 미팅을 원했으며, 보통의 경우 말씀이 많으신 편이라 밤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다. 회사에서의 인정은 더 큰 업무 배정으로 이어졌다. 그 회사에서의 마지막은



맡겨진 프로젝트와 함께 3주 정도 밤을 새우며 마무리되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골3:23)는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직장과 가정의 밸런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회사’를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동문 선배님과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HEM Pharma로 이직하게 되었다. HEM Pharma는 ‘인간의 장 속 미생물 환경’(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을 연구하는 바이오 회사이며, 많은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었다. 때마침 IT 개발팀을 조직하고 있었다.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팀 규모가 크지 않아 기획자는 나 혼자였다. 팀원들은 40대로 나와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과장급 이상 직책의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었다. 다행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 덕에 세대 차이와 경력 차이를 극복하고, 회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던 미생물과 실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LIMS)을 함께 구축할 수 있었다. 감사한 것은 유연근무제 덕에 집중 근무시간(13~16시)을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채울 수 있던 것이다. 그 바람에 이직 후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개인의 시간이 보장되니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IT와 BT(생명공학)를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로또’ 보다 더 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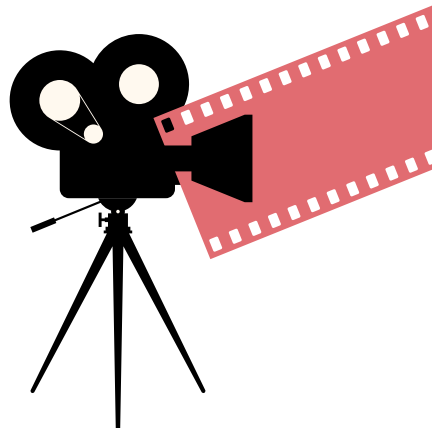
월급으로 카드값을 갚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수중의 돈을 보며 ‘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 대신에 공부나 열심히 할 걸’이라며 부끄러운 후회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로또’ 한 장을 사들고는 일장춘몽을 꾸기도 했다. 그때 “만약 로또가 당첨되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당첨되면 기도를 안 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는 커녕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과 ‘돈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음을 깨달았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마 6:33)를 구하는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게 되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조혜상



HEM Pharma IT 개발팀 IT 기획자로 재직 중이다. 한동대에서 ICT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한동대 학생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에 학생 리더로 참여하였다. 졸업 이후 창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선거는 ‘전쟁’, 공명정대한 ‘전투’여야!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선거는 국민의 잔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주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준엄한 행위이며, 국가원수, 지방 자치단체장, 기관장 등을 선출하는 공적 행사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는 국민의 축제와 같은 신나고 흥겨운 과정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내 편 네 편이 나뉘어 한 판 놀이마당이라도 즐기듯 혼신을 다한다. 참으로 꿈에 그리는 이상적(理想的) 풍경 아니겠는가. 따라서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불법 위법 탈법이 개입할 여지가 결코 없어야 한다.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동무하고 공동체의 역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적 풍경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킹메이커들의 부상

영화 <킹메이커>는 현대의 선거 풍경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어느 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배경이다. 오하이오주 주지사 모리스는 민주당 폴맨과 경선에서 앞치락뒤치락한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각축전 중이다. 선거팀이 꾸러지고 각종 미디어와 인맥을 동원하여 홍보에 열을 올린다.

선거는 전쟁이다. 이등은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냉정하고 냉혹한 경쟁인 것은 패배자의 삶이 거의 잊혀지거나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과 재정을 어디서 복구한단 말인가. 또한 자신을 믿고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

겠는가. 선거의 패배는 그야말로 패가망신까지 갈 수 있는 사투라 하겠다.

모리스를 지원하는 선거팀의 사무장은 폴이다. 그는 합리적이고 신뢰를 중요시하는 전략가이다. 그 밑의 스티븐(고슬링)은 젊은 야심가다. 선거 열기가 가열되면서 모리스와 폴맨 선거사무실은 서서히 숨겨놓은 카드들을 쓰기 시작한다. 허위정보 유포, 상대방 비방, 투표 방해, 모금행사 방해, 미디어 음해 등등 네거티브가 작동한다. 그런 와중에 스티븐에게 은근한 제의가 온다. 상대 후보 폴맨 사무실에서다.

‘책사’의 위기

스티븐은 없어서는 안 될 전략을 제시한 인물로 부각된다. 그는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중횡무진 활약한다. 그러는 중 인턴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상대 후보 사무실에서 온 제의는 그의 마음을 흔든다. 좋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 치열한 선거전에서 상대방 선거사무장을 만나는 행동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 미팅은 눈치 빠른 한 정치부 기자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스티븐은 이 일을 결국 상급자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상급자는 스티븐을 몰지각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재고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그는 선거가 비열한 전쟁이지만 신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퇴출된다.



영화 <킹메이커>(2011, 조지 클루니 감독)

의외의 변사 사건

같이 일하던 인턴과 가까워진 스티븐. 자신에게는 일탈이자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 반전은 선거전에서 인정받던 젊은 엘리트가 결국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 후보 사무실로 건너가 자신의 몸값을 흥정하지만, 얼마 전까지 자신을 스카웃 하려던 이들은 이제 냉혹하게 돌아선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것.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경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스티븐. 그런데 그 인턴이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

승리를 위한 적과의 동침

스티븐은 인턴과 지내다 핸드폰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에 눈길이었다. 발신자를 숨기려던 인턴, 그때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결국 그 장본인이 모리스, 대선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반전! 스티븐은 모리스에게 은밀한 비밀을 무기로 흥정한다. 원래 톰슨이란 상대방 인사는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 톰슨은 자신에게 국무장관을 약속하면 표를 몰아주겠다 제의했지만 모리스는 거절했다. 톰슨이 이름난 정치관 쓰레기라는 이유에서다. 이익을 위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자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모리스가 그만 '미투'에 걸려든 것이다. 스티븐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미끼로 협박에 가까운 딜을 한다.

모리스는 스티븐을 다시 선거사무실로 부르게 된다.

'미투' 사건이 폭로되면 모든 게 끝장날 것이기에. 스티븐은 상급자 자리였던 사무장직에 앉게 되고, 자신을 해고한 사무장을 쫓아낸다. 먹고 먹히는 선거판은 정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모리스는 수세에 몰린다. 인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 선거 전쟁에서 진실을 말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결국 살기 위해, 쓰레기라고 했던 톰슨과 악수하며 표를 구걸한다. 모리스는 마침내 적과의 동침을 통해 승기를 잡는다. 스티븐은 교활한 책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선거전을 이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선거 전망

영화 <킹메이커>는 선거전 뒤에서 펼쳐지는 어두운 실상을 폭로한다. 그 네거티브 필름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단순한 문구이리라. "선거가 선거다워야 한다." 선거다운 선거는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특히 국가의 리더들을 선출하는 준엄한 주권 행위이며 한 점의 불법, 위법, 탈법 행위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리더들의 생애와 실력, 공약이 명명백백하게 평가되고 공명정대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롬 13:4).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을 만한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하겠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위태로운 시대와 마주한 예술가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김상진의 개인전은 위태로운 삶의 현주소를 파고든다. 전시장은 강의실로 꾸며져 있고 거기에는 빈 의자와 책상이 텅 그마니 놓여있을 뿐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천정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그림 1)



(그림 1) 김상진, 올해의 작가상 202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장면

전시장 한구석에는 한 남성이 우리에게 간혀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고 강의실 건너편에는 “I will disappear”라는 문구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전시장에 흐르는 느리고 음울한 사운드는 ‘코로나 19’의 무거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준다. 김상진의 작품은 시대를 투영하는 작가정신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찰해볼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이 그 누구와도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의 눈높이에서 동시대 동료들이 살아가는 것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망을 포기하는 사이 삶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섬긴다는 뜻이고 각종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보는 동시에 그들을 비추는 희망의 섬광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며 작가는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기독교 화가이자 이론가인 마코토 후지무라(Makoto Fujimura)가 문화를 돌보는 일이란 소외와 고통, 억압에 관한 진실에 대해 말하면서 그와 함께 ‘소망과 회복’에 관한 진리를 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롬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설 책임을 지닌다. 살롬의 문화는 살롬의 비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선함, 질서와 조화, 풍성함과 풍요로움, 온전함, 기쁨의 비전에 가깝다. 제임스 헌터(James D. Hunter)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살롬이 구체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즉 공감함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살롬은 타인을 향한 시선과 맞닿아 있다. 씨에스 루이스(C.S. Lewis)가 말했듯이 성찬을 빼놓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거룩한 대상을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런 예는 종종 전시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의 클레어 패티(Claire Patey)는 “내 신발을 신고 1마일만 걸어봐”라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그림 2)



그림2) 클레어 패티, 내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봐, 런던의 공공미술관

방문객들은 미술관 컬렉션에 소장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게 된다. 걷는 동안 헤드폰을 통해 신발 주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들은 순조로웠던 결혼 생활이 난관에 부딪힌 남성의 이야기, 교도소에 있는 동안 예술에 심취하여 예술가의 삶을 살게 된 화물 자동차 운전사의 이야기, 줄지에 노숙자가 된 이야기 등을 듣게 된다. 참여자의 소감이다. “걷는 동안 신고 있던 신발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신발 주인과 이상할 정도로 일체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강렬한 느낌이었죠.”

공감을 매개로 하는 작가들이야말로 갈등과 투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라는 멋진 희망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상상력을 발휘할 공감 없다면,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능력 없이는 다정한 연인도, 뛰어난 예술가도, 훌륭한 정치인도 되지 못한다. 사랑이 넘치는 폭군이 있다면 말해보라.”(Julian Barnes).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좀더 이해하게 되고 조화로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이의 긴장감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상황과 하나님의 소

명 사이에 긴장에 붙들려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세상에 속해있는 기독교 예술가의 삶에는 무언가 구분 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제언은 새겨들을만하다. 그는 “기독교적 차이는.....뭔가 새로운 것을 밖으로부터 낚은 것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낚은 것의 적절한 공간 안에서 정교하게 새로운 것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볼프는 이것을 ‘부드러운 차이’(soft Difference)라고 불렀는데 기독교적 존재의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벧전 2:9). 상한 문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거나 두려움과 의심의 세상에 희망과 신뢰를 선포하는 일, 돈과 권력과 섹스가 규범으로 뿌리내린 세상에 구축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일 등이야말로 창조적 청지기의 몫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기록하거나 속된 예술을 따로 만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대는 넓고 크다. 우리를 기다리는 장소, 사람이 있기에 기대를 품게 한다. 지난 세기의 예술가들이 사회 내에서 비참함과 허무와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오늘의 예술가들은 회복과 재결속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술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매마른 문화의 토양 위에서 섰고 참되며 아름다운 것을 길어낼 것을 고대해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

이상민 (교육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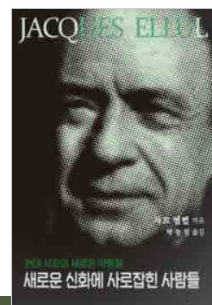
최근에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며 엘뤼가 사후에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현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및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 같은 사회적 위기, 통제되지 않는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의 위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핵 재난, 유전자변형 식품과 광우병, 동물 복제로부터 시작된 인간 복제의 가능성, '코로나 19' 같은 대유행 전염병 등이다. 그런 위기와 위험과 재난에 직면하여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시도 가운데서, 기술을 중심축으로 하는 엘뤼의 사상을 돌아보니 그 해결의 실마리와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엘뤼의 사상은 사회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으로 구분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한다. 그중 사회학적 측면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국가, 예술 같은 분야에서의 현대 기술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신학적 측면은 성서 연구 및 자유, 소망, 기도, 돈, 폭력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고찰 혹은 윤리적 고찰로 나타난다. 엘뤼의 저작 전체에서 <새로운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사회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저서이다.

엘뤼는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을 들면서 이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그는 현대 세상에서의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그런 지적은 현대인이 여태껏 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현대인이 기독교에서는 벗어났지만 '신성한 것'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현대 세상이 세속적이고 세속화된 세상, 무신론적이고 종교와 무관한 세상, 신성을 박탈당한 탈(脫)신화화된 세상이라는 것이 사회 통념이 되었지만, 현대 세상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종교의 시대가 결국 끝났다는 견해가 현대인의 실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엘뤼는 '세속화'와 '세속화된 사회'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현대인이 신성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또한 현대 기술 사회는 신성한 세상이 더는 아니라는 견해도 반박한다. 그리고 '신성한 것'의 기능 그리고 '신성한 것'과 관련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신성 박탈의 시도와 방향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 새로운 '신성한 것'의 중심 요소로서 기술을 들면서, 현대인의 근본 신화와 세속 종교가 무엇인지 밝힌다. 또한 현대 기술 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신화들을 분석하면서, 그 다양한 신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즉, 현대인이 '신성

〈새로운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 / 자크 엘릴 / 박동열 역 / 도서출판 대장간 / 2021



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현대 기술 사회에는 다양한 '세속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 '세속 종교'에는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신화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그런 새로운 신화들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즉,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 그 신화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 신화들에서 근본적으로 신성을 박탈함으로써 그 신화들을 없앤다면, 엄청난 대다수의 사람을 광기나 혹은 자살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은 현대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거나 광기를 막아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신화들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음 같은 문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런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는 현대인이 그런 신화들에 매혹되어 그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 혁명 이후부터, 일상생활에서 현대인 각자는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삶이나 미래와 상관없는 수많은 정보에 매몰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처리기술을 통해 현대인은 모든 것에 대한 현실감을

잃어버린다. 또한 현대인에게는 어떤 현실이든 그 자체와 다른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진 내용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은 기술이라는 엄청난 도구에 매혹당하고 사로잡힌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왜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다. 그 때문에, 현대인 모두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에, 엘릴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순전히 허구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프랑스 사상이자 자크 엘릴의 여러 저서를 번역했으며, 자크 엘릴의 사상과 관련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저서로는 〈자크 엘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공저) 등이 있다.

현대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관찮을까?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조물로 간주하여 그 울타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선봉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적 행동에 무제한의 자유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며 낙태의 자유를 요구한다. 전통적인 성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이런 흐름이 '국제동성애 인권단체'의 권고와 선진국들의 선택임을 제시하며 우리도 빨리 그 방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우리보다 그들 먼저'(Them Before Us)라는 기관이 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를 모토로 세워진 기관이다. 어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이 성인이 된 후,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며 대표인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와 이 단체의 수석편집자인 스테이시 매닝(Stacy Manning)이 공저한 <아이들은 정말 관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는 성 개방, 이혼, 동성애 등의 이유로 전통적 가정의 약화를 우리보다 미리 겪은 미국의 현대적(비전통적인)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는 사실과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책은 생물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이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1/3이 의붓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는 혼혈가족이다.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성인 즉 양부모가 가정에 함께 있다는 것은 아이들 안전에 큰 위협 요소임을 아이들의 이야기와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성별은 분명하며 서로 많은 차이가 난다. 생물학적 성별의 특성은 임신 초기부터 명확히 구별된다. 반면, 사회적 성별이라는 젠더는 과학적 기준이 전혀 없이 본인의 느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 정체성의 전반적인 혼란을 유발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생물학적 성에 맞춰 양육되어야 하며, 그 모델이 되는 양성의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둘째, 결혼으로 세워진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중요하다. 동거, 느슨한 가정, '일부다처제'(polygamy), '나홀로 결혼'(sologamy) 등 가정의 전통적 정의를 파괴하며 얻으려는 성인들의 성적인 자유는 그 성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등지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혼과 재혼 역시 아이들의 생존에는 위협적이며, 성장 과정에서 극복할 수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 가정에서...〉 / 케이티 파우스트, 스테이시 매닝 / 하선희 역
도서출판 콜슨 / 2021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혼한 부모들 사이를 왕복하며 성장한 아이들은 비록 양쪽 부모들과 각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들, 성전환한 부모의 아이들, 정자 난자 기증에 의해 출산한 아이들,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춘의 많은 시간을 뿌리를 찾아 헤매는 데 소모한다고 한다. 특히 정자 기증의 경우, 한 사람의 정자로 40여 명에게 시험관 아기를 수정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기증자가 범죄자 혹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넷째,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즉시 뒤따르는 반론이 입양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책은 그 반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준다. 입양은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한 아이들에게 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가장 잘 지켜줄 가정을 찾아 회복해 주는 과정이다. 반대로 어른들의 욕구가 우선인 위의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성을 통한 생명의 탄생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생

명 탄생의 생물학적 원리이며,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인 것이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의 자유를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 낙태 처벌법의 위헌 판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자유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려는 ‘건강가족기본법’ 등의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법들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아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그들의 운동에 독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류현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 교수이다. 유전학, 후성유전학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세계관의 이해’라는 강좌(themeforeus.com)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한국생명윤리협회, 성과학연구협회에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충돌하는 세계관〉(공역)이 있다.

지금 왜 신사참배를 다시 이야기하는가?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신사참배〉는 “왜 신사참배를 다시 이야기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료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오창희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창설 멤버이자 총무로 섬겼고, 서울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은 학자이며, 현재 지역교회 목회자(흰돌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다.

저자에 따르면 〈신사참배〉 저술 동기는 신사참배가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한국 교회가 머리를 숙인 사건이 아닌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일 수 있으며, 그런데 다수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죄를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또한 저자는 흥미롭게도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북한의 공산주의의 원인을 일제 강점기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신사참배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다.(30, 138면). 저자는 그렇게 된 이유가 우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고,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대표적 오해로서는 “우리 세대가 짓지 않은 죄를 왜 회개해야 하느냐”라거나 “죄를 몇 번이나 더 회개해야 하느냐”라는 반론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성경에 대한 무지의 반영이다. 저자는 이 무지들을 바로잡는 해법으로 특별히 구약성경의 다니엘을 소개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그저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하였다.”(213면).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있고, 포로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선 이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12면). 마찬가지로 저자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다니엘을 따라서 해야 할 다음 세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208면). 둘째, 법적으로도 충분한 취소 결의가 있어야 한다.(210면). 셋째,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친 후, 낱짜를 잡아서 모든 교회가 일제히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한다.(212면).

저자가 소개하는 상징적인 사건의 한 대목은 이러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중들이 행하던 신도의 세례(침례), ‘미소기하라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미소기하라이란 신도의 예식 가운데 참배 전에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말한다. …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

〈신사참배〉 / 오창희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21



다면 신도의 세례를 받는 것은 신도의 신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 미소기하라이는 ‘천조대신(天照大神)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어졌다.”(104~105면).

장로교는 1938년 9월 10일 결의를 통하여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감리교 역시 같은 해 10월 7일 이른바 양주삼 총리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애국일’ 행사를 치르며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 남산의 조선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1938년 12월 12일에는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 여러 곳의 신사를 참배하고 왔다.(101면). 반면에 한국교회는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주남선 목사와 같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면직 혹은 제명하거나 교회에서 추방하였다.(102면). 저자에 따르면 당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한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은 낙타 머리를 천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용인한 것과 같았다. 한번 신사참배를 용인하자, 그보다 더 심한 행위들을 요구했을 때도 한국 교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 천조대신 숭배와 같은 요소들이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서고 말

았다.”(131면).

저자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범한 엄청난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죄과의 의미에 대한 제대로 된 배움과 회개 실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당시 한국 교회의 실패와 다수의 신사참배 목회자들의 배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는 것이 마치 자신은 그 사건들과 무관한 역사적 의인인듯 착각하는 혼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자가 찾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다니엘에게도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첫째, 만일 지금의 한국교회가 또다시 일제시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과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둘째, 내가 만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206면).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28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대학생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교회, 예수 이야기에 충실한 종말론적 혁명 공동체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1940~)와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 1946~)이 저술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있는사람, 2008; 개정판, 2018)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성찰과 비전이 담겨있다. 하우어워스는 노틀담 대학교를 거쳐 듀크 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듀크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저술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윌리몬은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 겸 교목실장으로 활동했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역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하늘나라의 식민지’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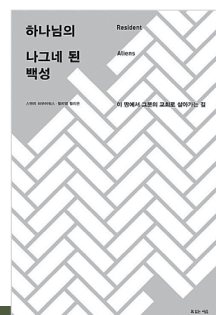
하우어워스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성경적 서사를 강조하는 후기자유주의 입장의 예일 학파에 속하며,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1927~1997),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1929~) 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하우어워스는 예수 이야기와 기독교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 이야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며, 제자 공동체로의 모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또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이웃을 사랑

하는 존재로서의 덕과 성품에 관심을 가지며, 비폭력 평화주의로 하나님 나라 신학을 형성해왔다.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사상적 바탕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도 고스란히 작동하는데, 특히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야기에 충실한 교회가 세상에 대한 대조사회로서 지닌 항구한 역사성과 확고한 가시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먼저 저자들은 주류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구조적 폭력을 용인하면서 기독교를 지탱해온 ‘콘스탄티누스주의’를 고발한다. 특히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 1894~1962)가 저술한 <그리스도와 문화>(IVP)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행위의 통일성을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화와 정치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주의의 사회 전략을 승인해 주는 결과”(64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요더는 ‘행동주의 교회’, ‘회심주의 교회’, ‘고백 교회’로 교회의 유형을 구분한다. 그 유형들 중에서, 저자들은 복음이 결핍된 세속적 낙관주의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행동주의 교회’나 개인의 내적 변화에만 치중하는 ‘회심주의 교회’를 거부하고, 효율성이 아닌 신실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대항문화적인 ‘고백 교회’를 지지한다.

또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라는 ‘계몽주의’가 신앙을 관념적인 사유로 추상화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저자들은 사회 윤리가 ‘고립된 영웅적 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 스테리 하우어워스 & 윌리엄 윌리몬 / 김기철 역 / 복있는사람 / 2008.



아’(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개인)를 전제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복음을 사사화(私事化)하면서 신앙의 공적 역할을 상실했으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했다고 폭로한다. 이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단위”(119면)는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교회라고 역설하며, 예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성품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의 존재 방식이자 세상과 구별된 삶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팔복은 명령법이 아닌 직설법”(122면)이며,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행함’(doing)의 문제 이전에 ‘봄’(seeing)의 방식이라고 설파한다. 다시 말해, 산상설교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공동체”(132면)로서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라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종착지를 세상과 다르게 해석하도록 안내하며, 불의한 현실에 맞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갈 5:5) 담대함을 허락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과제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60-61쪽)이라는 관점으로 교회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세속 학문과 현실 사회를 제한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가 공론장에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으로 세상을 돌보려는 시도를 타협과 순응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저자들에게 ‘분파주의’(sectarianism)라는 오명을 씌우게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따라서 초월적 하나님께서 인간 역

사와 현실 사회에서 내재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새 시대를 낳는 탄식을 내뿜으며, 이웃과 공동체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과 고통을 위로로 바꾸는 복음의 공공선을 이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부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돈의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변증이 예수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복음을 일련의 신념 체계로 축소해버렸다는 점에서, ‘교회다움’이라는 간절한 외침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절망의 사사시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통해 희망의 역사를 이어 가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고유하고 낯선 방식으로 “새로운 표징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데”(122면) 그 목적을 두고, “세상이 자기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대안적인 사회”(35면)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이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서울 정릉교회(예장 통합) 청년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공학 영역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마 6:10) 역사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꿈꾼다.

성복중앙교회 세계관 학교



김문진 (성복중앙교회 세계관 학교 담당목사)



‘성복중앙교회 세계관 학교’는 신앙과 삶에 통합적인 성경적 관점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삶에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지난 2020년 1기, 2021년 2기 과정이 ‘코로나 19’의 어려움 중에도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매년 7~8월, 1기는 8주 과정, 2기는 6주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금요일 저녁 집회 시간을 이용하여 청년과 장년 등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커리큘럼 (1, 2기)

(1) 2020년 1기 8주 과정

- 7/10 세계관(1) : 한국인의 세계관 - 안점식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 7/17 세계관(2) :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신국원 (총신대학교 교수)
- 7/24 감정 : 핵심감정 성경으로 돌보기 - 노승수 (강남성도교회 목사)
- 7/31 역사 : 한국교회와 사회적 영성 - 배덕만 (백향나무교회 목사)
- 8/7 언론 : 성경적으로 언론 살펴보기 -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 8/14 환경 : 창조세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 김정욱 (서울대학교 교수)
- 8/21 문화 :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 윤영훈 (빅퍼즐문화연구소 소장)
- 8/28 일상 : 일과 소명 -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기 - 신동열 (소명교육개발원 대표)

(2) 2021년 2기 6주 과정

- 5/23 과학 : 과학과 신앙 - 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
- 5/30 역사 : 역사란 무엇인가 - 조영현 (고려대학교 교수)
- 7/9 세계관 (1) : 성경적 세계관의 선교적 비전 - 신국원 (총신대학교 교수)
- 7/16 세계관 (2) :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재구성하라 - 이정훈 (엘정책연구원 교수)
- 7/23 세계관 (3) :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 이정훈 (엘정책연구원 교수)
- 7/25 역사 : 기독교 부흥사 - 박용규 (총신대학교 교수)

‘성복중앙교회 세계관 학교’는 사회의 각 영역,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관 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길 소망하며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FAITH & LIFE**

성북중앙교회 세계관 학교 소감문

가장 정확한 응답의 자리

성북중앙교회 청년부에서 그동안 여러 훈련을 통해 큰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였다. '새가족반'부터 시작하여 '기초양육반', '제자훈련', '선교훈련' 등 여러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들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하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관 학교는 나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었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모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복음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가장 본질이 되는 뼈대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이슈와 문제들은 때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되었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건 홀로 하기 쉽지 않았다.

세계관 학교 참여는 이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국원, 안점식, 이정훈 교수님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삶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행동과 선택을 가져오는 관점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근본이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감정의 문제, 우리의 역사, 언론과 환경, 문화와 우리의 소명, 일상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계신 강사분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말씀과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각 현장으로 적용이 되는,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그 말씀이 옷을 입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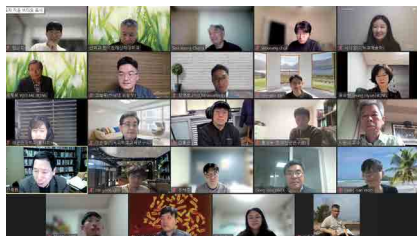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지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적실한 시간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되고 목마름이 있었던 지점을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주신 하나님과 세계관 학교를 준비해주신 교회에 감사한다.

올해 또 다른 영역과 이슈들을 통해 찾아올 세계관 학교 3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글쓴이 김유리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성북중앙교회에는 2016년부터 출석하여 순장, 회장, 찬양팀 싱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에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다양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고,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연구와 대중운동의 가치를 공감하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초청된 전체 21명 가운데 30대 학자가 14명이나 되

어, 다음 세대 동역자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온 선배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모임의 시작은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격려와 응원의 한 말씀으로 이 ‘간담회’의 가치와 의미를 더 빛나게 해 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선배 학자들의 순서였다. 장수영(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동역회 이사), 유재봉(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동역회 이사), 박문식(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장).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봄 윤현준 동역회 실행위원(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이 처음으로 제안하여 동역회 많은 선배 학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주제에 따라, ‘간담회’의 주 내용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약 3분 정도 자기소개 및 현재 집중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리스도인 학자(지성인)는 누구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간담회’는 앞으로 그리스도인 지성으로서의 상호 교제 및 응원, 기독교 세계관적 공동 연구(책 나눔 그룹 스터디, 주제 연구)와 저술, 학술지 <신앙과 학문>과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성과 영성의 일원화’라는 비전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 이 ‘간담회’의 구성원은 첫 모임에 참석한 21명 전원을 포함하여 6명이 더 합류함으로써 현재 27명이다(아래 명단 참조). 동역회 모든 회원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FAITH & LIFE**

고철웅(한남대 법학과 교수), 김태룡(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홍근(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 류제경(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이창훈(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안승범(경희대 국문과 교수), 양정아(한양대 특임교수, 교육철학, 성균관대 Ph.D),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염동한(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최재윤(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영호(MakinaRocks, 데이터 사이언스/AI, KAIST Ph.D), 김홍빈(서울대 물리교육과 연구원(포닥), 이론물리학, 연세대 Ph.D), 문석원(LG 화학연구소 연구원, 재료공학, 포항공대 Ph.D), 백승찬(서울대 생명과학부 연구원(포닥), 서울대 Ph.D), 서나영(백석대 강사, 기독교예술헌학, 미 남침례신학대학원 Ph.D), 서호규(Cleveland Clinic, Post-DOC, 생명과학, KAIST Ph.D), 오민용(스마트스디지탈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철학, 고려대 Ph.D), 이유현(카카오브레인, 생명화학공학과 AI 전공, KAIST Ph.D), 이종철(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육학, 부산대 Ph.D), 안재호(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 EEMS 전공, KAIST Ph.D), 임상희(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입자물리학, KAIST Ph.D), 정문선(사교육혁신연구소, 교육철학, 성균관대 Ph.D), 홍성욱(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우주물리학, KAIST Ph.D), 홍승현(서울대 강사, 외국어교육학, 프랑수아-피레 대학 Ph.D), 홍지희(성균관대 강사, 교육철학, 성균관대 Ph.D), 최성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화학, KAIST Ph.D), 최우성(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기계공학/AI, 서울대 Ph.D).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 11+12월호 | 특집: '난민, 나그네,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 사이' 항목의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설립자) 인터뷰였다. 왜냐하면 미국 영화 주인공의 대화에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을 들으며,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네'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방인, 난민, 외국인 등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환대하는 일에 내 영역에서의 프로보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 김보경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 '주님께서 선택하신 열쇠가 난민인 것 같다'라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남는다. 6.25 전쟁 난민으로 살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땅에 살아계신 시대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난민을 이 땅에 맞이할 수 있는 감사하고도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선물 같은 이 시간들을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일임을 자각하고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소망을 품는다. - 김예원 (벡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간사)
-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난민의 비극으로 바라본 추태화 선생님의 시각은 한류 콘텐츠를 독해하는 나의 태도를 재고하게 하였다. 그의 말대로 난민의 상황은 '소외'이며, 물리적 소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소외를 겪는 이들 또한 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이러한 '소외'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임을 방증한다. '불가항력적 은혜와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확산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글이었다. - 김태룡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차별과 분열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민에 대한 지식적인 왕과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넘어 실천적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다양한 글들이었다. 다양한 관점의 접근 언제나 감사드린다. - 남선우 (서울 열림교회 청년부 담임목사)
-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를 품을 수 있는 시작은 생명 사랑, 생명 돌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문제들이 가슴을 찢고, 차디찬 가슴을 여미어 온다. 갈 길 없는 난민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편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 사랑이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난민들을 깨안 수 있는 우리 선교 정책의 시작이 되기를 생각해 본다. - 사호행 (익산 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세움연구소 대표)
- 이일 변호사의 글 '아니 난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단의 대표적 활동이 '단절'이며, 기독교 신앙은 초월하는 연결성을 내포하며, 사회학적으로 그것은 '연대'라고 표현된다고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대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감사하다.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약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할 기회를 찾아야겠다. - 이상수 (교육실천이음연구소 대표)
- 추태화 선생님의 글(영화를 보다), 서성록 선생님의 글(미술을 보다)을 읽으며 '난민의 영성'을 생각해 보았다. 본향을 찾아가는 난민(나그네)으로 살면서 현실의 난민을 대하는 영성을 기도할 수 있었다. - 안송범 (경희대 국문과 교수)
-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우선 순위와 교회의 선교 역량을 난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다 더 집중해야 함을 배웠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자랑하는 삶의 표현이,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관심에서조차 소외되고 멀어진 이들을 향한 우선적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임동진 (아이 & I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 이번 호를 통해 지극히 작은 이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난민을 비롯한 수많은 나그네를 위한 섬김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좋았다. - 최은정 (고신대 간호학과 교수)

2022년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8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참석: 실행위원 18명 중 13명 출석

2022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오후 7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참석: 이사 10명 중 7명 출석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오후 8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참석: 대의원 28명 중 21명 출석

안건: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 승인, 2022년 임원승인 및 사업 계획안 승인, 신임 이사 선출

이사 선출 결과: 박문식(한남대 교수, 임기: 2022.04.02.~2026.04.01.), 최현일(샘병원 의사, 임기: 2022.06.21.~2026.06.20.)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익법인 지정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 고시가 되었다.

학술지 <신앙과 학문>

26권 4호(2021년 12월 31일) 발간

최용준(한동대 교수/동역회 실행위원)의 논문 등 총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EMCU 총장),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부장),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지도자와 부모/교사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2022년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시작하고자 한다.

1)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 개교(3월 개강, 설명회 2/12, 2/26)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으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주말 캠프, 방학 캠프로 진행되며, 기독교세계관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금까지 기독교세계관 교육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연령별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진행한다.
- 가정에서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병행한다.

2) 기독교세계관 교육가 양성을 위한 지도자 과정

-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3월 14일 개강)
-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3월 14일 개강)

3)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3월 개강)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3월부터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도마 신화 읽기’를 개강한다.

4) 아산대학교 ‘기독교세계관’ 수업(3월 개강)

5)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부모세계관학교’가 3월부터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삼일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성광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가 3월부터 진행된다.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2022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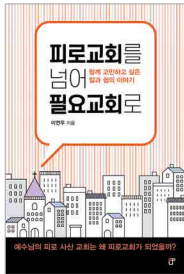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1) 신간 소개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 이연우 지음 / CUP / 308쪽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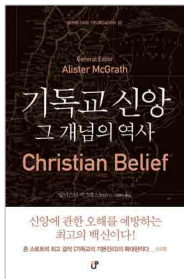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일과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왜 '피로 교회'가 되었을까?

이 책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일과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탐구한 책이다. 저자는 캐나다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공부하는 3년 내내 이 주제를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대학청년부 사역의 현장에서 이 주제를 확장했다. 이 책에는 특히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의 현실과 삶이 많은 부분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이 워드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되어 더 많은 논의와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2) 제3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국외) 최우수도서 선정

〈기독교 신앙 그 개념의 역사〉 / 알리스터 맥그래스 편집 / 오현미 옮김 / CUP / 양장본 / 860면 / 49,000원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편집주간으로, 고 제임스 패커가 부주간으로 기획의 중심을 잡았고, 알리스터 맥그래스를 비롯하여, 탁월한 신학자인 존 스탕하우스, 제럴드 브레이, 피터 워커, 그레이엄 톨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집필을 맡았다. 기독교의 역사적 흐름과 믿음의 의미, 하나님(신론), 예수님(기독교론), 구원(구원론), 교회(교회론), 기독교의 소망(종말론) 등의 주제를 깊이 있고 명료하게 다루었다.

추천자들의 말처럼 이 책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원스톱 서비스'이며, 옆에 두고 때마다 참고해야 할 기독교 신앙 핸드북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1년 11월, 1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11월	2021년 1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2,870,000	2,4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920,000	4,920,000
	임원회비	530,000	68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5,521,000	4,181,000		소계	5,320,000	5,320,000
	기관후원금	4,900,000	5,3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355,578	379,162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36,700	173,16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209,740	15,440
	VIEW후원금	1,140,000	1,245,000		소모품비	13,17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509,500	490,000		식비	302,000	328,5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49,360	615,280
	기타	0	0		퇴직연금	394,510	394,51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300,290	132,000
	소계	15,530,500	14,426,000		기타(지급수수료)	150,192	367,805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1,482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480,870	1,130,87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540,595	1,190,595
	기타수입	0	50,000	출판(회지)	인쇄비	324,000	2,585,220
	기금차입	0	0		발송비	10,000	600,67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306,400	323,330		소계	334,000	3,185,890
				기타	세금	110,050	40,860
					잡비	300	300
	소계	306,400	384,812		소계	110,350	41,1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600,00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600,00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4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996,8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329,50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3,164,666
	학술지게재료	0	5,330,000		학술지발송비	230,00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1,470,00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161,240	0
	소계	210,000	5,450,000		소계	1,717,540	4,634,666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1,009,795	1,356,33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1,356,330	1,026,965
	전월 이니시스 입금	50,000	5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50,000	0
	소계	1,059,795	1,406,330		소계	1,406,330	1,026,965
당월 수입액		17,706,695	21,667,142	당월 지출액		13,945,355	18,710,133
전월 이월액		33,140,451	36,901,791	차월 이월액 (잔액)		36,901,791	39,858,800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1년 11월)

3천 김성권, **3천5백**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문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홍준,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곤,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봉오,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민,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중원, 김중일, 김중철, 김치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훈,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식,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희, 박승호,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구,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원, 양혜원, 양희석, 양창숙, 연해민, 염도한, 오민용, 오성호,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가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상희, 이상진,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홍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숙,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태욱, 이호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철, 장광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다운, 정대용,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섭,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구,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일, 최성두, 최성호, 최용성, 최은정, 최홍빈,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현,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백** 곡도영,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섭, **2만**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경옥, 김정일, 김경호, 김태진, 마민호, 박기모, 박홍식, 백은석, 송찬호,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이주은, 장인석, 전항록, 정정숙, 정훈, 채기현, 최영, 한동빈,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고선욱,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나용근, 류진호,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빛과소금교회, 새너리치드,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의석, 이근호, 이은식,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3만5천** 김기웅, **4만** 강용만, 문석운, 양승규, 엄준용, 우병훈, 이덕영, **5만** 강다영,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운식, **6만** 김연수, 박희숙, 배성훈, 석종준, 유종현, 윤매옥, 이정미, 장성현, 전윤조, 정교진, 조한상, 최필립, 황동한,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이원삼, 정수영, 장점연, 조현미, 최현일, **12만** 김민철, 이정나, 이봉민, **240만** 조성표

계 10,600,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일원교회, **6만** 수원기독교대학교도서관,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서울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30만** 분당우리교회 **40만** 삼일교회 **220만** 수영로교회

계 5,070,000원

전체 15,670,500원

회원후원

(2021년 12월)

3천5백 곡도영,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문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홍준, 윤종선,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곤,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대용,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봉오,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민,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중원, 김중일, 김중철, 김치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철수, 김태훈,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홍식,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희, 박승호, 박안나,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구,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원, 양혜원, 양희석, 양창숙, 연해민, 염도한, 오민용, 오성호,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가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윤, 이다니엘,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상희, 이상진,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홍훈, 이원도, 이원재,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숙, 이정일, 이종철, 이종훈,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태욱, 이호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철, 장광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다운, 정대용, 정동관,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섭,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구,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상일,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홍빈,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동빈,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현,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4천** 최병진,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만,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경옥, 김경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백은석,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선정, 서유미, 이근, 이기서, 이연우, 이주은, 장인석, 전항록, 정정숙, 정훈, 채기현, 최영, 한동빈,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의석, 이근호, 이은식,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준용,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영,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한운식, **6만** 석종준, 열린교회, 지상선,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미영, 김태훈, 박영주, 손봉호, 손정영, 신국원, 정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200만** 정희영

계 9,13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새언약교회, 일원교회, **6만** 춘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더서울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산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분당우리교회, **6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계 5,410,000원

전체 14,546,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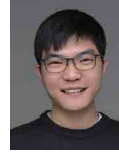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금으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출입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를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간의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Wentworth 선교사님의 대한민국 국적 수여를 축하합니다!



Wesley Wentworth
(한국명: 원이삼)

지난 56년간 한국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수행하시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웨슬리 Wentworth(한국명: 원이삼)
선교사님의 대한민국 국적 수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화 허가 탄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 선교사님 국적 수여 일정

일시 : 2022년 2월 24일 (목) 오전11시

장소 : 과천정부청사(법무부장관 직접 수여)

신앙과 학문

논문투고안내

지난 한 해에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 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마감일: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 ◆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세안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반 문의: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 문의: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